

# 게임업계, 대형신작 대거 출시... 하반기 실전 반등 기대 ↑

블리자드 '디아블로 이모탈' 출시 카카오게임즈 20일 '우마무스메' 위메이드 23일 '미르M' 선보여 넥슨 28일 '던파 듀얼' PC 출격

올해 상반기 게임업계 실적이 대부분 부진한 성적표를 거둔 가운데 신작 출시를 통해 하반기 실적 반등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컴투스 등 중대형 게임사들이 6월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게임업계의 실적 부진이 신작부재때문이라는 이유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게임사들의 대형신작 출시에 기대하는 바가 큰 분위기다.

우선 블리자드는 오는 3일 모바일 MMORPG '디아블로 이모탈'을 정식 출시한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블리자드의 히트 IP인 '디아블로'를 기반으로 만든 디아블로 시리즈 최초 MMORPG이다.

디아블로이모탈은 이미 전 세계 사전예약자가 3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출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이어 카카오게임즈는 오는 20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정식 출시한



왼쪽위부터 미르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디아블로 이모탈 BI

/각사

다. 우마무스메는 실존하는 경주마를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들고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용자와 경쟁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우마무스메는 지난해 2월 일본에서 우선 출시되면서 현지 앱 마켓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4월 누적 다운로드 수 1400만 을 돌파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오는 23일 '미르M'을 공개한다. 미르M은 미르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다.

지난달 31일 쇼케이스를 통해 '미르M: 벵가드 앤 배가본드'의 출시일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CBT를 통해 한층 높아진 그래픽과 풍성해진 아이템들을 선보여 유저들의 큰 기대를 얻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컴투스도 자사 IP를 기반으로 MMORPG를 선보인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IP기반의 첫

MMO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국내 출시 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 P20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오는 16일 미디어쇼케이스를 연다. 해당 자리에서 넷마블은 '세븐나이즈 레볼루션'의 출시를 공식화 하고 출시일을 예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세븐나이즈 레볼루션은 넷마블의 대표 IP인 '세븐나이즈'에서 확장한 MMORPG다. 지난분기 상장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넷마블이 이번 신작출시로 실적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이 집중된다.

넥슨도 오는 28일 던전앤파이터 IP를 기반으로한 대전 격투 게임 '던전앤파이터 듀얼(던파 듀얼)'을 PC(스팀)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출시한다. 던파 듀얼의 경우는 지난 2번의 OBT(공개베타 테스트)에서 높은 타격감과 스킬 능력을 호평 받았다.

게임업계가 6월에 앞서 신작 출시에 속력을 내는 이유는 오는 3분기 실적을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신작 출시로 실적 반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6월부터 대형 신작들이 대거 출시된다. 이에 맞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유저들도 이를 기대하는 모습. 사전예약자, CBT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올해 말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유영상 "UAM은 '게임 체인저'... 2025년 상용화 선도"

(SKT CEO)

뉴스룸 칼럼 통해 상업화 의지 표명 한화시스템 등과 초협력 체계 구축

SK텔레콤 유영상 CEO가 교통 분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새로운 해법으로 각광 받고 있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에 대해 강한 사업화 의지를 내비쳤다.

유 CEO는 2일 자사 뉴스룸 칼럼을 통해 "UAM은 막대한 교통 관련 사회적 비용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빠른 속도로 UAM 상용화를 완수해 고객에게는 혁신 서비스를, 주주에게는 무한한 성장가치를, 사회에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사회 인프라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명목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이 3.5% 수준으로 0.2%인 독일의 18배, 0.9%인 미국의 4배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8조원



유영상 SKT CEO(왼쪽)와 조비 비버트 조비에비에이션CEO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리나에 위치한 조비에비에이션 생산시설에서 UAM 기체에 함께 탑승한 모습. /SKT

의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UAM은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체를 이용한 도심 내 항공 이동 서비스다. '하늘을 나는 자동

차'로 불린다. 전기로 구동돼 운용 시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한국처럼 수도권에 사회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지역의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을 해결할 첨단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유 CEO는 "코로나19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속도로 기업 환경과 비즈니스를 재편하고 있다"며 "UAM은 2030년이나 실현 가능한 기술로 여겨져 왔지만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은 그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만큼 SKT는 2025년 한국 상공에 상용화를 선도하고, 2030년 완전 자율비행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KT는 UAM 상용화를 위해 하늘로도 연결되는 이동통신, 자율주행, 정밀측위, 보안, 인공지능(AI) 등 기반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반도체, 배터리 등 SK그룹 관계사의 역량과 UAM 기체 제작 1위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 한화시스템, 한국공항

공사 등과 초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상용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영상 CEO는 UAM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나서는 이유를 신사업 철학과 연계해 설명했다.

유 CEO는 "새로운 SKT가 추구할 10년 후 미래사업은 아직 어떤 기업도 선점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에 더해 우리가 겪는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면 금상첨화로, UAM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신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유 CEO는 UAM과 같이 기술 혁신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커넥티드 인텔리전스(Connected Intelligence)라고 정의하며,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우주 개척 등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신사업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LG유플러스

하루 데이터 로밍 100원 프로모션 기간 한달 연장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선보인 '하루 데이터 로밍 100원' 프로모션에 6만명 이상의 고객이 몰리는 등 높은 호응을 보임에 따라, 프로모션 제공 기간을 6월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진행한 '데이터 하루 최대 100원, 부담 제로 U+로밍 프로모션'은 전세계 주요 80여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로밍 서비스다.

출국 고객은 하루 최대 100원만 부담하면 온종일 20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 KT '올레tv 요금제' 맞춤형 구조로 개편

KT는 자사의 IPTV 서비스인 '올레tv' 요금제를 고객이 선호하는 콘텐츠 혜택을 매월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올레tv 8개의 요금제는 TV 초이스 프리미엄, 스포셜, 플러스 3개로 그룹화된다. 기존의 올레tv 요금제는 17개로 운영됐다. 슬림, 베이직, 라이트 등 채널 수에 따른 서비스는 기존 상품으로 유지된다.

TV 초이스는 260여개 채널과 30만편의 VOD(주문형비디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고객이 선택하는 추가 혜택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고객은 원하는 혜택을 매월 변경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 LG, 美 구겐하임 뮤지엄과 예술·기술 융합 실현

글로벌 파트너십 맺고 5년간 후원

LG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뮤지엄'과 함께 첨단기술과문화예술의 융합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시작한다.

LG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구겐하임 뮤지엄을 후원하는 'LG

-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LG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현대미술 분야의 혁신적인 예술가들을 후원해글로벌 미술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적인 현대 미술관 가운데 유일하게 북미(미국 뉴욕)-유럽(스페인 빌바오, 이탈리아 베네치아)-중동(UAE 아부다비) 등

여러 대륙에 거점을 둔 구겐하임 뮤지엄과 협업해 글로벌 시장에서 LG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 구겐하임 뮤지엄의 티켓, 브로셔, 홈페이지 등에 LG 브랜드가 노출된다.

뉴욕구겐하임뮤지엄은미술관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허정윤 기자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구겐하임뮤지엄에서 열린 YCC 파티에서 참석자들이 LG디스플레이 55인치 투명 OLED9대로 홀로그램을 구현한 대형 포토월에서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